

LS ELECTRIC (010120)

| Company Issue Brief | 유틸리티 | 2025. 6. 25

엔비디아 AI 서버 냉각시스템 전력기기 공급 진행 중

| Analyst 성종화 | jhsung@ls-sec.co.kr

엔비디아 AI 서버 냉각시스템용 전력기기 공급 진행 뉴스

- ▶ 세계 AI 서버 시장 M/S 90%인 엔비디아 작년 AI 서버 냉각 방식을 공랭식에서 수냉식으로 변경하며 수냉식 냉각시스템 1위 업체인 벤티브를 벤더로 지정
 - ▷ 수냉식이 열관리 효율, 전력 소모 면에서 더 진보된 차세대 기술. 프레시던 스리서치에서는 글로벌 액체냉각시스템 시장 규모는 올해 25.3억달러(3.5조원)에서 2034년 127.6억달러(17.6조원)으로 9년 동안 5배, 9년간 연평균 20% 고성장 전망
 - ▷ 벤티브는 데이터센터용 기기(냉각시스템, 전력설비, 배전 등) 전문 업체인데 수냉식 냉각시스템은 글로벌 M/S 1위
- ▶ LS ELECTRIC, 벤티브에 엔비디아 AI 서버 냉각시스템용 전력기기(개폐기, 차단기 등) 공급 사업 진행 중. 벤티브가 전력기기 공급 벤더로 LS ELECTRIC을 선택한 것은 납기, AS 경쟁력이 핵심 요인
- ▶ LS ELECTRIC과 벤티브는 작년 8월 파트너십 맺고 엔비디아 AI 서버 냉각시스템 개발 착수. LS ELECTRIC이 공급하는 전력기기(차단기, 개폐기 등)는 수많은 반도체 사이 수로 간 뒤 냉각수 분배장치 통해 일정한 속도로 냉각수 돌리는 냉각시스템에서 전류흐름 조절, 차단으로 전체 시스템 보호하는 역할
- ▶ 청주공장은 물론 미국 텍사스주 베스트럽 14,000평 부지 베스트럽 캠퍼스(판매·A/S·R&D 시설, 1,000평 부지에 배전기기 반조립 라인 건설 중이며 2H25 건설 완료 예정)을 전력기기 현지 생산거점 활용
- ▶ LS ELECTRIC, 벤티브는 차세대 냉각시스템인 액침냉각(AI를 냉각수에 둘러싸인 공간에 설치) 부문도 협업 지속 전망

추가 포인트 체크 및 전반적 의미 점검

- ▶ 추가 포인트 체크: ① 진행단계상 속도, 시기면에선 유연한 자세로 바라볼 필요. 수주 가시화는 2026년부터일 가능성. ② BM은 단발성 공급이 아니라 수년간 안정적 공급 지속 모델. 즉, 최종 공급 계약 확정 시 첫 수주 이후 수년간 몇 천억원 매출 안정적 지속 모델. ③ 최종 고객이 엔비디아라는 점도 중요하나 사업적 측면 핵심 고객은 벤티브. 벤티브는 냉각시스템용 전력기기를 그동안 ABB로부터만 단독으로 공급받았는데 납기, AS, 가격 등 불만이 쌓인 끝에 벤티브 다변화 일환으로 동사에 먼저 접촉해온 것임
- ▶ 의미 점검: ① 향후 벤티브와 함께 엔비디아 외에도 구글, MS, 메타 등 다른 빅테크에도 전력기기 납품 확대 가능. ② 전반적인 배전시장 확대 방향성의 일환. xAI 수주에 이어 아마존, 구글, MS 등 빅테크 및 에퀴닉스, 디지털리얼리티 등 글로벌 디지털센터 운영업체와의 순차적 수주 가능성 등 동사 배전 부문 강한 터어라운드 진행 중인데 금번 벤티브를 통한 엔비디아 AI 서버 냉각시스템용 전력기기 공급 진행건도 그 과정의 일환

Buy (유지)

목표주가 (유지)	370,000 원
현재주가	311,000 원
상승여력	19.0 %
시가총액	93,300 억원
KOSPI (6/24)	3,103.64 pt

Stock Data

90일 일평균거래대금	560.22 억원
외국인 지분율	24.7 %
절대수익률 (YTD)	93.4 %
상대수익률(YTD)	64.1 %
배당수익률(25E)	1.2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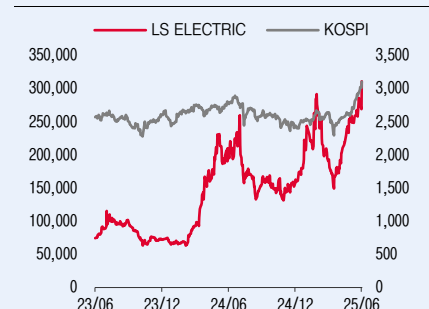
재무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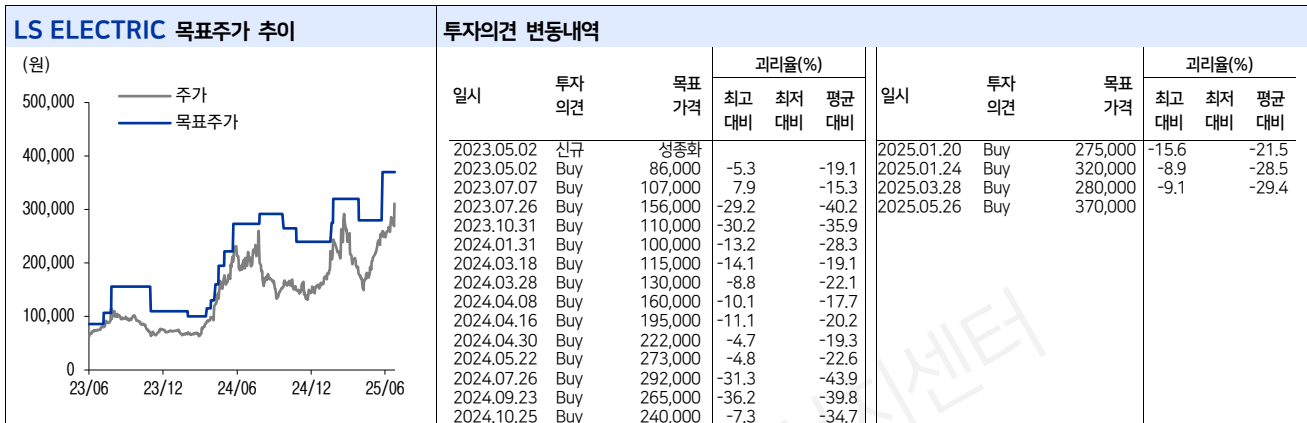
(억원)	2023	2024	2025E	2026E
매출액	42,305	45,518	51,462	58,971
영업이익	3,249	3,897	4,761	5,836
순이익	2,060	2,387	3,189	3,904
ROE (%)	12.6	13.2	15.9	17.3
PER (x)	10.7	20.2	29.3	23.9
PBR (x)	1.3	2.6	4.5	4.0

주: K-IFRS 연결기준

자료: LS ELECTR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Stock Price



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성중화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—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—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—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—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이전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합계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91.7% 8.3% 100.0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±15%로 변경 투자이전 비율은 2024. 4. 1 ~ 2025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